

요양소 화재조사보고서 요약

1998년 4월 27일 워싱턴시 알링턴에 있는 요양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2명의 수용인원 중 8명이 사망했다.

이 건물은 1908년 병원용도의 2층 목조건물로, 축조 후 여러 차례의 개축과 용도 변경을 거쳤다. 건물의 내벽과 천장의 마감재는 석고보드 또는 철망모르터를 사용하였고, 바닥마감재는 리놀륨과 타일이었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신 복도와 거실에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를 설치한 자동화재경보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경보설비 수동조작함은 비상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각 층에 음향경보장치가 하나씩 있었다.

2층에는 옥외로 나가는 복층 계단, 장애인용 경사로로 나가는 남쪽 비상문, 1층으로 내려가는 중앙계단 등 3개의 피난로가 있었다. 중앙계단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화문은 10파운드짜리 블록으로 괴어 항상 열려있는 상태였다.

화재발생 당시 32명의 수용자와 2명의 직원이 건물내에 있었는데, 수용자들은 정신병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밤 11시경, 여자 3명이 수용된 1층에 있는 방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간호순찰을 돌던 여직원이 발견하고 들어갔을 때는 불길의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지고 있어 진화 시도가 불가능하였다. 다시 복도로 나와 문을 열어놓은 채 지하층의 다른 직원을 불러 그가 불길을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복도로 번지지 않았다. 그

직원은 2층으로 올라가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그 때쯤 화재경보가 울렸다.

화재는 처음 발생한 방에서 열린 문을 통해 복도로 확대되었다. 이 방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계단을 통해 화재는 곧바로 2층까지 확대되었다. 중앙계단의 방화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연기와 화염이 2층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화재는 소방대원이 북쪽 출입문으로 진입하여 200갤론(750 l)의 물을 주수함으로써 진화할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3명, 중앙계단 맞은편의 2층 침실에서 3명, 중앙계단 옆 2층 침실에서 2명, 모두 8명이었다.

화재조사 담당관은 화재가 처음 발생한 침실의 수용자가 라이터나 성냥으로 침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화재에 대한 NFPA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인명과 재산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침구에서 발화
- 스프링클러설비의 미설치
- 화재가 처음 발생한 방의 연기감지기 미설치
- 화재가 복도로 확대되게 한 출입문의 개방
- 화재가 1층에서 2층으로 확대되게 한 방화문의 개방
- 맞은편 2층 침실 출입문의 개방
- 2층 침실 수용자의 비상계단 사용 실패

“Fire Investigation Summary”에서 발취